

한국화인케미칼 임금협상 극적타결

기본급 6.5% 인상에 타결성과급 100% 지급키로 ... No.1 라인도 가동

한국화인케미칼이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2003년 11월8일 마무리 지음으로써 파업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간 쟁점이었던 임금문제는 기본급 6.5% 인상과 타결성과급 100% 지급안에 합의했고 노조의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90.2% 찬성으로 통과함으로써 약 3주간 지속됐던 파업사태가 해결됐다.

그동안 한국화인케미칼은 TDI(Toluene Diisocyanate) 2개 플랜트 중 정기보수중인 No.1 플랜트를 제외한 No.2 플랜트를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2교대 근무를 실시해 맹독성 가스인 포스젠을 원료로 생산하는 플랜트 안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화인케미칼은 파업사태가 해결됨에 따라 미가동라인이었던 No.1 플랜트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인케미칼 관계자는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 양측이 다소의 양보를 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안도했으나 최초 제시했던 노사의 견해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그동안 노사 양측은 교섭진행 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임금·단체협약 진행과정이 순탄한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13>